

부모 심정

단장(斷腸)이란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

우리 말에 애가 탄다는 말이 있다. 이 '애'는 옛말로 창자를 뜻하는데, 애가 탄다. 즉 창자가 탄다는 것인데, 뱃 속에 있는 창자에 불이 날 수가 있겠는가.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보다는 애가 쓰인다. 좀 더 심하게 말할 때 애가 탄다고 말하는 것이지 말하기 편리하지가.

애가 탄다는 말은 과장된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 사실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옛날 중국 이야기책 세설 신어(世說新語)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장군 환은(桓殷)이 촉(蜀)나라로 가는 도중, 삼협(三峽)을 배로 오르고 있을 때, 부대에 있는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 왔다. 그러자 어머니 원숭이는 새끼를 잃고 슬퍼 울며 언덕을 따라 백 여리를 따라온 뒤에 마침내는 배 안으로 뛰어 들어 그 길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죽은 어머니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속을 들여다 보았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 아마 슬픔의 독소로 창자가 녹아내린 것이리라.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환은은 크게 노하여 새끼를 잡은 사람을 부대에서 내쫓도록 명령했다 한다.

새끼를 빼앗기고 구곡간장이 녹아서 죽은 원숭이나. 들불에 날지 못하는 새끼와 함께 타죽은 까투리. 자식을 위해 한평생 희생만 하다 죽은 부모들, 새끼를 위해 내 한 목숨 바치는 게 부모의 본능적 희생인가.

태워 버리는 것,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 할까, 순리라 해야 옳을까. 섭리라, 순리라 하고 따르라 하면 무엇을 위한 섭리요, 순리란 말인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순리라면 허망하다. 부모란 것이,

나는 없고 자식뿐이니 어찌 허망타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눈 감아버리면 세상도 끝인데 자식인들 무슨 소용인가.

자식도 부모 되고 부모도 그 전에 자식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부모들이 자식으로 자랄 때하고 지금 자식들의 생각과 행위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는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고 오로지 저 아내, 저 자식뿐이니.

부모의 헌신적 희생과 사랑은 의

무적이라 하고 공경과 감사는 커녕 부모 가슴에 못 박을 짓거리나 골라 하다가 저 다 자라면 한 마리 매가 되어 뒤도 안 돌아보고 후루루 날아가 버린다.

제 갈길로 흘러간 공은 돌아보지

를 말라 했던가. 배추벌레가 배추 속일 다 뜯어먹고 크지만, 저 날개 돋으면 두 번도 더 안 망설이고 후루루 날아가 버린다. 벌레의 생애일 때는 동지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만 날개가 자랐다고 동지는 더 이상 좋은 곳이 못 된다 하면서.

나비 되어 가버리는 걸 배추가 어찌겠는가. 손이 있으니 불잡을 수가 있다. 발이 있으니 쫓아갈 수가 있다 할 수 없지. 그저 구멍 송송 뚫린 잎사귀 너실 거리면서 시름을 달래고 원망을 말아차지.

배추신세나 겹게 타 곁대기만 주미 원숭이는 새끼를 잃고 슬퍼 울며 언덕을 따라 백 여리를 따라온 뒤에 마침내는 배 안으로 뛰어 들어 그 길로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죽은 어머니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속을 들여다 보았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 아마 슬픔의 독소로 창자가 녹아내린 것이리라.

먹고 자라 빼대만 앙상히 남은 아비를 내버려둔 채 저 갈길로 달아나 버리지 않는가.

배추 벌레가 속 다 파먹어버린 배추 신세나, 살집 다 뜯어 먹어버린 가시고기나,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등 허리가 휘어지고 뼈의 진이 다 빠져 푸르죽죽 꺼칠꺼칠 기름기 빠진 가죽, 형해(形骸)만 앙상히 남은 부모들의 검은 뼈가지나 뭐가 다르겠는가. 배추벌레나, 가시고기 새끼나,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그래도 부모는 주고 또 주어도 더 못 주어서 안달하며 늘, 언제나, 항상, 자식들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조사하는 게 부모 심정이다.

이제는 탕빈 껌대기뿐이라 줄 것 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강통, 허수아비, 속 빈 강정이면서도, 그래도 주고 싶어 안달을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어느자식이 알아쫓꼬, 부모 심정 헤아려주지 않더라도, 애가 타는, 창자 끊어지는 일이나 하지 않았으면.

내 힘들었던 삶이 자양분으로 녹아 아이들 성장의 토양에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천원의 비료가 되길 기도 했으면 참 좋으련만.

서로에게 소식을 전함시다

동 정

◆ 김우현 회원 (경우산악회장)



재경 밀양향우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 회원은 최근 73세란 고령에도 불구하고 밀양시가 주최한 「밀양 아리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10킬로 미터를 완주하는 노익장을 과

시했다. 『고향에서 전국의 1만여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어울려 뛰면서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김 회원은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30여종으로 구성된 자신만의 운동기법인 萬種百回 운동으로 몸을 풀고, 집에서 서울대까지 걸어가 서울대학 대운동장을 몇 바퀴씩 뒀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운동(약 7킬로의 거리)을 20여년째 해 오고 있다.

◆ 정재택 회원 (경우장학회 총무 이사)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실시되는 미래대학 장학제도와 국제 교류관계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편 벅부 소재 아세아 태평양 대학, 나가사키 대학의 장학제도 전반에 대한 시찰을 하고 귀국한다.

주 소 변 경

◆ 宋齊根 前 경우회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29
삼성래미안@ 115-901
☎ 031-8005-6406

◆ 조재현 前 해경경우회장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660-4번지
주공 1단지 27동 406호
☎ 02-573-3453

◆ 김종악 회원 (前 전남경우회 부회장)

서울시 도봉구 창 4동 38번지 주공@ 1702동 505호
☎ 016-639-2033

◆ 金載德 회원 (변호사, 前 총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 동관 411호
☎ 02-534-1717, 010-3099-3942

◆ 全在禮 회원

인천시 서구 불노동 신명@106-301
☎ 032-272-4206

◆ 嚴美子 회원

서울 은평구 대조동 83-26
☎ 02-359-3238, 019-512-3238

◆ 박홍수 회원

서울 성북구 길음 3동 동부센트레빌@ 101-201
☎ 02-982-2107

◆ 李錫燦 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번지
파크뷰@ 605동 1201호
☎ 031-783-3355, 011-217-0456

부 음

◆ 金在鍾 前 경찰대학장 타계



경찰대학장을 지낸 김재중 회원이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 향년 62세로 타계했다. 지난 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1979년 경정으로 경찰에 특채된 뒤 전남경찰청장(1996~1998), 인천 경찰청장(1998~1999), 대통령 치안비서관(1999~2000), 경찰대학장(2000), 국무총리 민정 수석비서관(2001~2002) 등을 역임했다.



◆ 김재행 회원 (용인대학교 총장, 前 경우회 지문위원장)의 부친이 지난 3월 31일 오전 5시 숙환으로 별세.

◆ 이강문 회원 (前 총경)이 지난 3월 25일 숙환으로 별세.

◆ 이종래 회원 (대전충남경우회 이사)이 지난 3월 26일 오전 11시경 숙환으로 별세. 향년 80세

◆ 김용규 회원 (부산경우회 부지문위원장, 前 총경)이 지난 3월 22일 목요일 숙환으로 별세. 향년 70세

◆ 이두형 회원 (대구성서 경우회)이 지난 4월 4일 오전 7시경 숙환으로 별세. 향년 68세

◆ 양승규 총경 (광주 공안경찰서장)의 부친이 지난 4월 4일 오후 8시 숙환으로 별세.

◆ 서준근 경정 (서울 용산서)의 부친이 지난 4월 8일 숙환으로 별세.

◆ 김용갑 경감 (경찰청 경비과)의 모친이 지난 3월 21일 오후 1시경 숙환으로 별세. 향년 72세

◆ 이을수 경사 (경찰청 총무과)의 부친이 지난 3월 12일 오후 5시경 숙환으로 별세. 향년 82세

모 임

◆ 서울경찰학교 제 11기 동우회

오는 4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64번지 제일은행 본점 9「제일음」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당면현안을 논의한다.

• 회 장 조광섭 ☎ 011-384-1341
• 사무총장 이근보 ☎ 017-264-5649

專門醫에 듣는다

우 울 증

— 이민수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과)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성인 10명 중 1명이 일생동안 한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평균적으로 30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발병되지만, 요즘 그 발병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노년기에도 발병이 늘어나고 있어 전 연령층에 나타난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제 기능을 못하게 돼 발생하는 것으로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금방 했던 일도 잘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기분은 괜찮은데 소화 불량, 두통, 목과 가슴에 뭔가 걸린 듯한 답답함, 변비나 설사처럼 몸이 여기저기 아픈 신체증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울증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면서도,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자살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위험한 질

병이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느냐'하는 것 보다 '우울증이 있는지'의 여부가 자살의 예방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이다.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볍게 여기고 치료를 받지 않거나, 낫지 않는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은 약물로 제때 치료를 받으면 80%이상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질병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에 활기가 없거나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2주간 지속될 경우에는 용기를 내 정신과를 찾을 필요가 있다. 평소 건강 한 생활습관과 적절한 취미활동 등으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울증도 고혈압이나 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울증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면서도,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자살한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위험한 질

〈문의 : 02)920-5505〉

초대詩

기다림이 있기에

— 임 정 기 (서울마포경찰서)

잊혀져가는 그리움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없고
그리움도 없다면

허전함과 쓸쓸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날들도
낯설고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그리움이 가슴속 깊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란
설렘으로 맞이하며
기다림이 있기에
삶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삶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

잊혀져 가는 사람 보다
내 곁으로 돌아 올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가슴설레는 것은

SYS (주)씨스팜 www.syseshop.co.kr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추출오일

관절염증 감소

국내 7개 대학병원(다기관)에서 관절이 불편한 사람 54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인체시험을

실시한 결과 관절기능개선확인이 되었습니다(open study). 출처<최신의학 2002년 2월호>

위험 전제는 관절이 불편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관절 기능성을 식약청에서 국내 최초로 인정 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단계 특허공법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타제품의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7년동안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체시험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경우신문 광고를 보시고
전화주시는
경찰가족분들께
특별가로 드리겠습니다



리프리놀은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권장소비자가
60정 X 2병 = 13만원

☎ 02-850-2525

리프리놀은 다른약물이나 식품과
같이 드셔도 안전합니다

농협 067-01-280253 (주)씨스팜